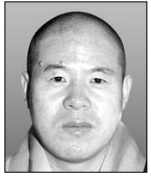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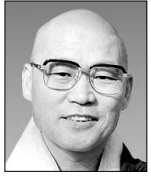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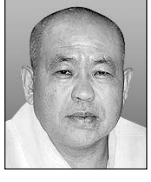
국대인간 기원 팔관회
부산시불교연합회장 대선 스님은 국대인간과 2005년 APEC 성공개회를 기원하는 팔관회를 11월 14일 오후4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개최한다.(051)867-0501



대불련에 500만원 지원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자승 스님은 최근 수상한 제 7회 효령대상의 상금 1000만원 가운데 500만원을 대불련에 지원하기로 했다.



태고 보우국사 다래재 봉행
양평 사나사 주지 화암 스님은 11월 3일 태고보우국사 탄신 703주년을 기념하는 추모 다래재를 봉행했다.(031)772-5182



제1회 정광문화제 개최
울산 정광사 주지 도정 스님은 11월 4일 정광사에서 화정회, 다도회, 서예반, 민요반 회원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제 1회 정광문화제를 개최했다.



목조각전시장 대불광 이전
불교목조각분야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허길량 씨가 11월 18일 서울 조계사 맞은편으로 삼설 전시관인 대불광을 이전한다. 이전식은 오후5시, (02) 738-1117



치악산 상원사·견성암 참배
한마을선원 광주지원 최성휴 신도회장은 10월 30-31일 법령제회원들과 함께 치악산 상원사, 견성암을 참배했다.



습의사 선본 스님의 지도로 발우공양을 체험하는 문화재청 직원들

문화재청 직원들 통도사에서 사찰체험

문화재청(청장 유홍준) 직원 160여명이 10월 29·30일 양일간 통도사(주지 현문)에서 템플스테이를 겸한 문화재 현장 혁신토론회에 참가해 사찰 생활을 체험했다. 정부기관의 연찬회가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형식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 29일 템플스테이 입재식에서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현장체험을 하는 것이 문화재 행정을 한 차원 올리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인사했다. 문화재청 직원들은 1박2일 동안 발우공양, 사물시연관람, 예불, '고려선박 발굴' 등 현장 혁신사례보고, 성보박물관 관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통일과 북 사찰 복원 원력 성취됐으면...”

신계사 복원불사 도감 제정 스님



“남북한 민간교류 역사에서 남한 종교인이 북한에 머물며 종교 활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 사찰이었던 금강산 신계사 복원을 맡은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11월 2일 조계종 신계사복원불사추진위원회(위원장 종상)로부터 신계사 복원불사 도감에 임명된 제정 스님(사진)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
“북한 거주 기간은 2007년까지입니다. 신계사에 머물며 대중전, 일주문, 요사채 등을 차례로 복원해 대가람의 면모를 갖추어가겠습니다.”

금강산과 신계사를 방문하는 일반시민과 불자들에게 옛 금강산 불교의 찬란한 전통을 알리는 역할도 수행하고 싶습니다.
제정 스님은 1989년 출가해 동국대서 미술사학을 전공했고 미국 보스턴과 샌프란시스코에 머물며 포교에 전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한 것이 도감에 임명되는 계기가 됐다는 후문이다. 스님은 “비록 대형 불사를 맡아본 경험은 없지만 해인사에서 오래 생활하며 장경각 불사를 도운 경험과 불교 미술사 지식을 토대로 신계사를 원형 그대로 재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변변한 요사채도 갖추지 못해 어려움이 많겠지만 남북통일과 금강산 유점사, 표훈사, 장안사 등 금강산의 유서 깊은 사찰 복원을 기원하는 기도를 매일 하겠다”는 스님은 신계사 대중전에 모실 부처님과 함께 11월 11일 금강산으로 떠난다.
강유신 기자

“자활시설 보완에 최선”

소쩍새마을 새 원장 성목 스님



“2008 식구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면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편안한 시설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 11월 2일 임시사회를 통해 임명한 장애인 복지시설 소쩍새마을의 신임 원장 성목 스님(사진)은 “숙제”는 소쩍새마을의 시설문제와 자활지원. 조건부복지시설인 소쩍새마을을 내년 7월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다.
스님은 “5월부터 시작한 게이트 볼 게임은 치료효과가 높아, 다른 신체자활프로그램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며 “업재활훈련을 확대 시행해 식구들의 자신감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033)762-9870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조직정비로 신행 강화”

대불청 제23대 회장 김익석 씨



“와해되어 가는 지구 지부 지회 등 조직 복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단위조직부터 조직 분기법을 도입해 진단하고 조직복원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낼 계획입니다.”
10월 31일 공주 갑사유서호스텔에서 열린 대한불교청년회 제 48차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 102명의 만장일치로 선출된 김익석 씨(44·사진)는 “대불청이 대불청의 조직 구축과 더불어 청년회원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당선자는 수행·참선·통일·환경 학교와 연차·직급별 교육 등을 강화하고 청년회와 포교사들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지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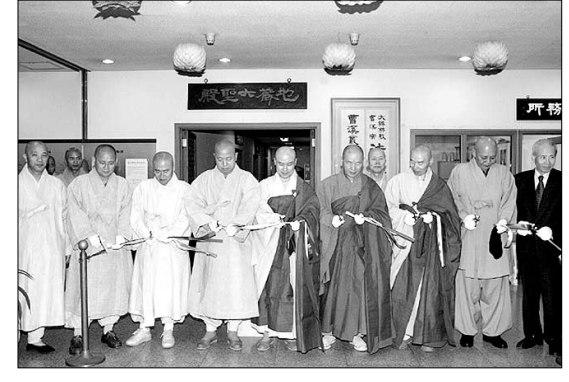
“치유 위한 배아복제 허용돼야”

프린스턴대 톨먼 총장 황우석 교수 만나



“불치병 치유를 위한 배아복제는 허용돼야 합니다.” 11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황우석 교수(서울대 수의학과)를 만난 셸리 M 톨먼 프린스턴대 총장(57·사진)은 오른쪽은 이같이 밝혔다.
톨먼 총장은 20여 년간 쥐의 장기세포를 연구했던 자신의 경험을 거론하며 “배아복제 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기술은 나쁜 목적으로 쓰일 때 위험해진다”며 “치료 목적의 배아복제는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5년 이상 그리고 폐기처분된 냉동배아에 대한 과학적 실험은 미국, 일본 등 각국에서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며 “불치병을 고치기 위한 의학 연구 활동이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승보종찰 송광사 역사사진전 개막



‘승보종찰 송광사 역사 사진전’이 서울 법원사(주지 보경) 불일미술관에서 11월 3일 개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최화, 법원사 회주 현호, 송광사 주지 영조,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과 조계종 종회의원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동국대에 1억원 장학금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11월 4일 동국대학교(이사장 현해)를 방문해 1억원의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불교대(74명), 문과대(3명), 이과대(2명), 법과대(2명), 사회과학대(3명) 등 모두 100명이다.

청교련 혜명양로원 방문 봉사한마당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가 10월 31일 혜명양로원을 찾아 ‘할아버지 할머니 효 실천-손녀 손자되는 날’ 행사를 벌였다.
시설노인 70명과 청소년 70명, 대학생 지도자 20명 등 총 160명이 참여했다.

부불운전기사회 창립 16주년 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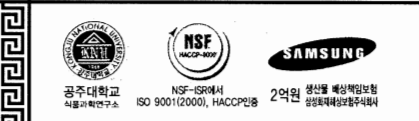
개인택시부산불교운전기사회(회장 박병진)는 11월 4일 코모도 호텔 총무실에서 창립 제 1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범사 주지 대선 스님, 부산불교신도회 공병수 신도회장, 설동준 부산시 교육감 등 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제2회 중단협회장배 체육대회



제 2회 중단협회장배 체육대회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한국불교기자협회 주최로 10월 30일 김포 중앙승가대 운동장에서 열렸다. 이날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 BTN 조재룡 사장을 비롯 각 언론사 기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Advertisement for Samseonre and Bangseongdorang. Includes text: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www.yongkungsa.or.kr', '해동용궁사'.



이것이 명품이다!

명품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제품으로써 그 효능과 품질로 말합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일천분에 한하여 심마니토종오가피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리보세요.

심마니 토종 오가피

오가피 묘목분양 오가피 묘목분양 상담 공장 및 농장견학회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55-1114

